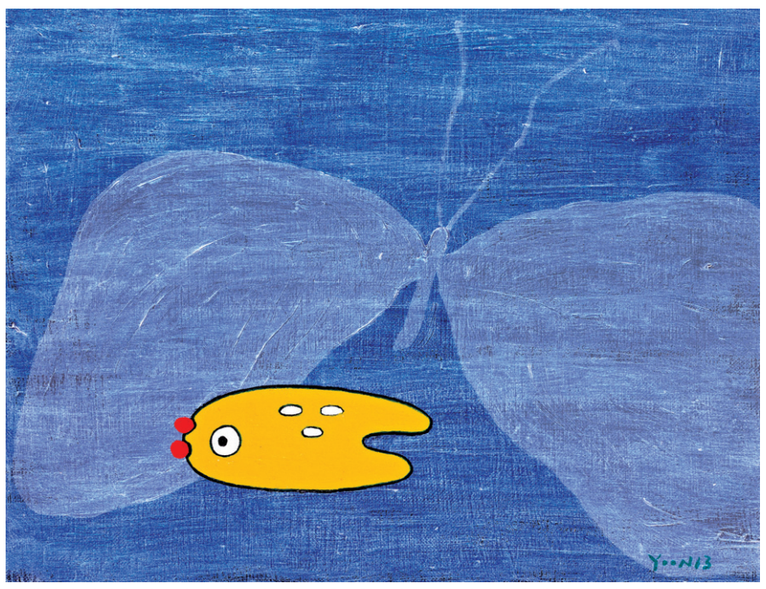
“나비는 바다 위에서 무상을 말하네”

성륜 스님 ‘꿈’ 전… 6월 5일~11일 윤갤러리서



수행자의 내면을 화폭에 펼치는 성륜 스님은 6월 5일~11일 인사동 윤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이 없어져요. 철저히 몰입해 물감을 칠하고 그것이 마르고 굳고 하다보면 작품 하나가 완성되고 또 한 세월이 가죠. 고개 한번 돌리니 벌써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새로운 전시를 하게 되었네요”

성륜 스님은 25년간 그림을 그려온 화가이자 수행자다. 그 세월 동안 15번의 개인전을 가졌고 1천 여장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리고 6월 5일~11일 인사동 윤갤러리에서 대중들을 찾는다. 지난해 5월에 이어 전시를 여는 스님은 이번 작품 역시 나비를 통해 내면을 표현했다.

“지난 전시 작품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저 또한 이 주제에 대해 좀더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보고자 다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제 나비는 바다로 나아갔다. 남색 계열을 바탕은 바다가 되었고 나비는 변화무쌍한 세월을 만났다. 바다에 살 수 없는 나비를 바다 위에 띄운 스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그리고 그 옆을 오가는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비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이고 또 나이기도 하죠. 결국 무상이죠. 나비가 바다 위에 살 수는 없지만 수행자는 어디에 있든 온전히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비는 곧 수행자이고 그것은 또 나이기도 해요. 물고기 역시 지혜의 상징이자 늘 깨어 있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렇다. 스님은 경운동의 한 빌딩에 있는 세 평 남짓의 공간에서 그림에만 매진하며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수행자는 산을 택하지만 스님은 산 대신 도시의 숲 속에 몸을 의탁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곳이 수행처입니다.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산속에 살며 화방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가까운 화방에 들러 그림 재료를 사려면 여기가 좋죠. 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적응해 살면 그곳이 곧 수행처죠”

스님은 전시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스님은 나비처럼 물고기처럼 도시의 바다 위에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불자가수 신궁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청년 불자 가수 신궁이 이끄는 인디밴드 온더스팟이 ‘영자야’로 오월창작가요제 대상을 탔다. ‘영자야’는 청년실업과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유적인 가사와 경쾌한 리듬으로 심사위원과 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온더스팟 신궁의 공연 장면.

신궁은 정토회 평화재단에서 주최한 안철수 박경철의 ‘청춘콘서트1’의 오프닝 공연에서 음성공양을 펼치면서 이 시대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게됐다. 청년들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전해주고자 만든 곡이 ‘영자야’다. “중생구제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면 불자로서 당연히 사회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만든 노래입니다”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포수(鋪首)→용 ㊦

고증 없이 받아들인 오류 ‘답습에 답습’



그림①

〈龍을 短縮法으로 표현한 놀라운 조형〉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기문 띠

그림②



그림③

용을 표현할 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첫 번째는 용의 옆모습을 길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누구나 용인지 알아본다. 2. 두 번째 방법은 몸은 없이 용의 얼굴만을 정면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좋은 예가 종래 귀면와(鬼面瓦)이다. 일본 학자와 이를 받아들인 한국 학자들은 귀면(鬼面)이라 불러왔으며, 중국학자는 수면(獸面)이라 불러왔다. 3. 세 번째 방법은 용을 정면으로 보아 표현하되 앞다리와 꼬리를 함께 표현하여 용의 긴 모습을 앞에서 얼굴부터 몸까지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방법을 단축법(短縮法)이라 하는데, 단축법(foreshortening)이란 단일한 사물, 인물에 적용된 원근법으로서, 단축하여 표현하므로 대상의 크기는 보는 이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줄어들어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과장될 정도로 크고 나머지는 매우 작게 보인다. 단축법은 르네상스 시대의 투시도법의 발견과 더불어 발달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과감히 시도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러한 세 가지 표현방법에서, 1은 크게 벌린 입에서 보주를 하나 내는데 보주가 비록 한 개뿐이지만 무량한 보주를 내는 것을 상징한다. 2는 역시 용 입 안에 한 개 내지 네 개의 보주를 물고 있어서 무량한 보주를 내는 것을 상징하거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기문(靈氣文)을 좌우로 뻗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개념도 없고 명칭[용어]도 없어서 필자가 개념도 정립하고 용어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3은 역시 2와 같이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에서 단축법으로 표현한 용을 볼 수가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완벽한 단축법으로 표현한 예가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의 용이다. 그러면 바로 ‘백제의 대향로의 뚜껑에 표현한 용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 뚜껑의 도상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 향로가 부여에서 출토되었을 때 여러 학자들이 발표했던 논문들을 모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10주년 기념 연구논문자료집, 백제 금동 대향로〉를 펴냈다.(2003년, 국립부여박물관) 모든 논문들에서 포수 혹은 수환(獸環)이라 부르고 있는데, 주로 포수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음을 알고는 그 연유를 알아보았다.

우선 해방 후 우리나라 제 1세대의 학자는 이 모습을 보고 포수(鋪首)라 불렀다. 포(鋪)는 고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수면(獸面) 즉 짐승머리에 문고리가 붙어 있어서 포수(鋪首)라는 이상한 용어가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코 밑에 고리를 달았다고 했으니 입에서 고리가 나온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1세대는, 그 장식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하였는데 한 대(漢代)의 문헌기록에 있는 포수(鋪首)라는 용어를 믿고 연구한 일본학자의 연구논문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백제 대향로에는 고리가 없다. 고리가 있어야 포수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짐승모양이 같아서 고리가 생략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고리의 엄청난 상징을 알면 생략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실제로 생략할 수도 없다. 논지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제 3세대는 제1세대의 논문을 그대로 따라 ‘포수라고 불리는 도철문(饕餮文)’이라고 인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역시 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백제 대향로의 그 도상은 포수로 확정되어 널리 퍼지고 있음을 알았다. 모든 용어가 이렇게 일본의 그릇된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제1세대에 이어 그대로 오늘 날까지 전수되어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 오류의 연원은 이미 중국 한(漢)대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원전(原典)조차 우리나라 학자들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오류가 대대로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진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향로의 것은 고리가 없으므로 포수도 아니다.

단축법으로 드러낸 ‘용’ 짐승으로 오도

그러면 백제 대향로의 그 신비스러운 도상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 향로의 수많은 신령스러운 도상들 가운데 유독 가장 크고 강렬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귀면이나 포수라고 부르는 괴수 같은 도상은 바로 용의 온 모습을 단축법(短縮法)으로 나타낸 것이다! 눈은 전형적인 용의 눈이며 눈이 보주로 변했으므로 눈썹은 보주에서 영기가 발산하는 모양을 이루고 있다.

두 뿔이 제1영기싹을 이루고 있으며, 코는 다양한 형태의 세 개의 보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뿔 사이의 삼각형 모양은 원래 보주를 상징하는 육면체에서 비롯한 것이다. 얼굴 양쪽에는 두 앞다리가 있으며, 그 뒤로 몸이 둥글게 돌아서 맨 뒤와 동시에 머리 위 중앙에 있는 마름모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의 꼬리’이다.

고구려벽화에는 용이나 봉황, 기린 등에 꼬리가 모두 여러 가지 영기문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그 영기문에서 갖가지 영수가 탄생하는 도상이 많다. 백제 대향로의 이 용의 전체 모습을 단축법으로 표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조형이다. 그리고 과장하여 가능한 한 길고 큰 입을 향로와 뚜껑의 가운데 두 줄기 영기문 띠에 가까이 대고 있어서 마치 그 띠를 물고 있는 듯하다. 그 두 줄기 영기문 띠는 바로 이 용의 입에서 발산하는 영기문이다! 이에 이르러 우리는 백제 대향로에서 용이 얼마나 훌륭한 조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 진면목을 극적으로 만난다.

원 작품은 단색이므로 무엇인지 잡히지 않았지만, 채색분석을 하여보니 용의 모습이 놀라울 뿐이다. 왜 용이 가능한 한 아래를 향하여 입이 영기문 띠에 대고 있는 까닭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다. 곡선만이 영기문이 아니고 직선도 영기문이다.

백제 금동 대향로에서 이 용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은데 그것을 포수나 귀면이나 도철문으로 보고 또 입에서 발산하는 역동적 영기문을 당초문(唐草文)이라 인식하고 있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2인용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1인용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